

설계·감리 용역입찰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기술용역 제안서 평가절차 및 공동도급 방식 개선 -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철도건설사업 입찰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감리분야 용역업체 평가절차 및 공동도급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설계·감리용역업체 선정 시 평가위원 7명 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던 것을 변경해 외부위원을 3명 포함시키고, 내부위원의 자격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평가위원 추천 시 입찰참여업체가 참관하거나 입찰참여업체 대표가 직접 추천하도록 개선해 '도담~영천 복선전철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6건과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노반 보완 실시설계' 2건의 설계용역부터 개선된 제도를 즉시 적용했다.

또한 본부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기술용역 물량 축소로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 특정업체의 무차별적 참여를 막기 위해 다수 용역 동시 입찰 때 업체의 입찰 참여건수 및 참여지분율을 발주건수에 따라 일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본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평가를 통해 설계 성과품 향상시키고 우수 감리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설계·감리용역 입찰 주요 개선내용 일람

구분	종전	개선	
평가방법	위원자격 및 구성방법	내부위원(부장, 차장 5년차 이상) 7명	내부위원(부장, 차장중 기술사/박사 소지자) 4명 + 외부위원(설계자문위원) 3명
	평가위원 추천방식	내부직원이 직접 추천	입찰참가업체 대표자 참관 또는 추천
공동도급	발주건수에 관계없이 10%이상 다수 용역 입찰 가능	발주건수에 따라 참여건수 및 참여지분을 제한	

시공·감리업체 차등 관리

- 안전사고 발생률 따라 우수·미흡 업체 분류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철도건설현장의 무재해 안전시공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업체와 감리업체를 안전사고 발생률에 따라 우수 또는 미흡 업체로 분류해 차등 관리한다고 밝혔다.

품질안전평가처는 현재 시공중인 305건의 철도사업에 대해 사고발생률을 참여업체별로 분석해 3건 이상의 건설사업을 수행하면서 무사고를 달성한 참여업체의 10%를 우수업체,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10%는 미흡업체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우수업체는 이사장 표창과 함께 입찰참가(PQ) 시 가점(1점)을 부여하고, 자율관리현장으로 지정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시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미흡업체는 중점관리 대상 현장으로 지정해 자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강제하고 평가 시 감점(최대 5점) 하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품질안전평가처 관계자는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입찰단계에서부터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철도건설공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미흡업체에 대해서는 공단이 집중점검을 시행해 현장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설현장마다 차이가 나던 안전관리 능력을 상향평준화시켜 전반적으로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철도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거래 이제 그만!!'

- 하도급관리 매뉴얼 및 불공정 사례집 발간·배포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철도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관리 매뉴얼 및 불공정 사례집을 발간해 전국 285개 철도건설현장의 감리단 및 원·하도급 협력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건설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인 하도급의 승인, 대금지급 및 계약변경 절차, 하도급대금과 임금체불시 불공정 행위 신고 방법, 불공정 사례·심결사례·Q&A를 일목요연하게 수록해 건설 현장 종사자 누구나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본부 관계자는 "책자의 발간·배포에 그치지 않고 동절기에 공단 담당자, 감리단 및 1, 2차 협력사를 상대로 본 교재를 이용한 관련 교육을 실시해 하도급 통보·승인, 하도급 점검 및 불법 하도급 신고 등 효과적인 하도급관리가 이뤄지도록 해 더 이상 관련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가 본 철도기술 정보는 얼마짜리?

- 이용자에 의한 '콘텐츠 가치평가 서비스' 도입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철도산업정보센터(www.kric.or.kr)에서 제공하는 4만여 건의 철도기술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정보 이용 후 직접 그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는 '콘텐츠 가치평가 서비스'를 공공 포털사이트 최초로 도입했다.

철도산업정보센터는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연구원, 철도공사 등 14개 철도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철도 전문기술자료 4만건, 철도 정보콘텐츠 16만건, 철도 통계자료 289종을 6만여 철도유관기관 회원 및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는 1300여명이다.

본부는 이용자들이 직접 평가한 콘텐츠의 평균금액을 실시간으로 보여줘 양질의 정보생산을 유도하고, 평가가 낮은 정보는 유익한 정보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철도산업정보센터 관계자는 "12월 11일까지 평가에 참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며 "향후 평가결과를 분석해 우수정보 제공자 및 기관에 대해 시상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콘텐츠 가치평가 서비스 화면



철도건설 현장 품질·안전 실패극복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사례공유로 안전의식 고취와 재해예방 강화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지난 11월 19일 공단 사옥 3층 대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협력업체 등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철도건설 현장의 품질·안전 실패극복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전라선 고속화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분기기 운반 중 트로리 탈선사고' 등 3개의 실패극복사례와 영주댐 수물지구 철도이설 공사현장의 '사전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한 안전우수사례' 등 7개의 우수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금상(2건), 은상(2건), 동상(2건), 장려상(1건)이 가려졌다.

실패극복사례 3건에 대해서도 위기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해 해당업체에게 '위기극복상'인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7개 현장에 대해서는 '13년도 자율관리 현장 지정 및 참여업체 평가 시 가점(1~2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품질안전경영체 관계자는 지난 '10년부터 철도건설 현장의 품질·안전 실패극복 및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공유함으로써 실패에 대한 경각심 확산과 우수업체에 대한 자긍심 및 안전의식 고취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철도건설 품질·안전 실패극복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우수사례는 물론 실패극복사례를 수록한 사례집을 전 건설현장에 배포해 유사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중앙선 도담~영천~신경주간 복선전철 본격 추진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8개 컨소시엄 선정 -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중앙선 도담~영천~신경주(173.6km) 복선전철사업 기타공사 구간 8개 공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할 용역업체 8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중앙선 전철화와 시속 250km/h의 고속화를 통한 간선철도의 기능 강화, 경북내륙지역 철도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총사업비 3조6473억원을 투입해 '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입찰에는 30개 업체가 참여해 기술제안서 평가 및 가격입찰을 통해 8개 컨소시엄(32개 업체)이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다.

사업 공구별 계약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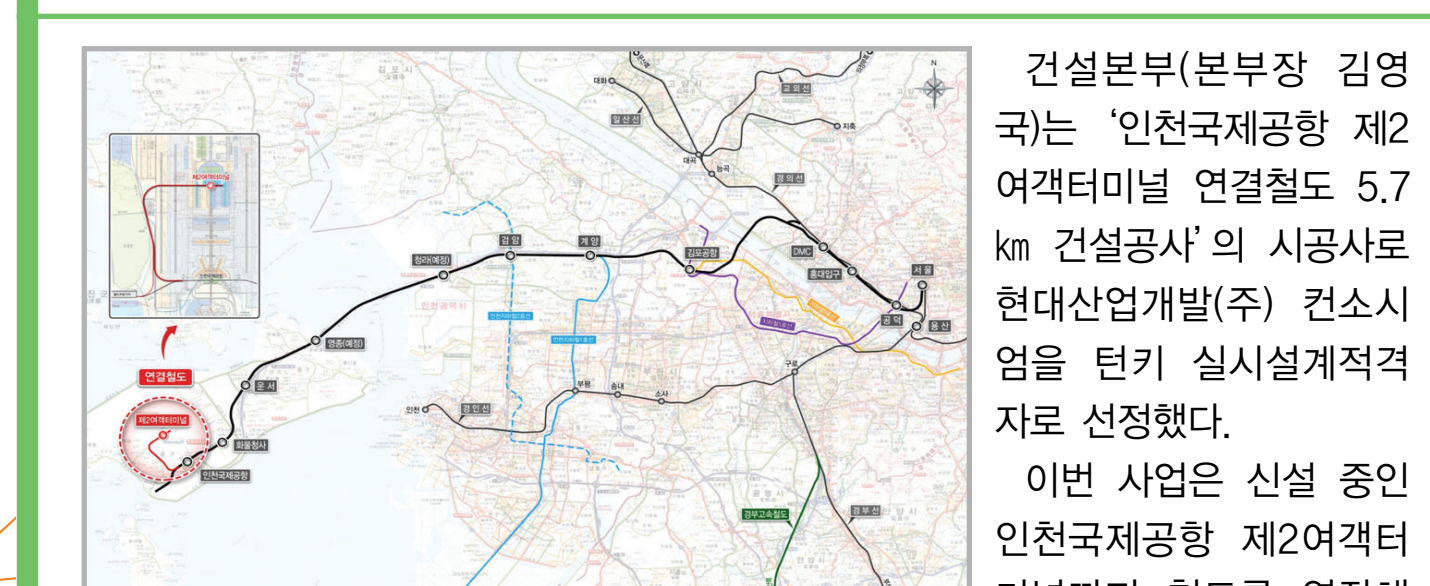
- (도담~영천)
 1공구: (주)화엔지니어링 외 3개사 2공구: (주)동명기술단 외 3개사,
 3공구: (주)서영엔지니어링 외 3개사 4공구: 동부엔지니어링(주) 외 2개사,
 5공구: (주)서현기술단 외 4개사 6공구: (주)평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
 (영천~신경주)
 1공구: (주)케이알티씨 외 4개사, 2공구 (주)이산 외 3개사

기술제안서 평가는 철도건설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7명의 평가위원 중 대학교수 및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이 포함된 외부위원 3명을 참여시키고 입찰참여업체 대표가 직접 평가위원을 직접 선정, 위원별 심의 결과도 공개했다.

본부 관계자는 "철도설계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내실 있는 설계가 이뤄질 수 있게 선정된 계약업체들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평창동계올림픽 KTX열차 운행을 위해 실시설계 착수 -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5.7km 건설공사'의 시공사로 현대산업개발(주) 컨소시엄을 턴키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신설 중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까지 철도를 연장해 공항철도와 KTX까지 운행하기 위한 공사이다. 인천공항 터미널 하부와 활주로 직하부를 터널로 통과해 어느 공사 현장보다 고난도 기술과 안전성이 요구된다.

입찰에는 낙찰받은 현대산업개발(주)와 2개 컨소시엄도 응찰했으나 지난 11월 23일 기본설계 평가 결과 현대산업개발(주)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는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8명이 참석해 이뤄졌으며 평가점수 및 사유를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해 평가 오명행위에 대한 감점제도를 시행하는 등 턴키제도 개선사항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사업은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11월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해 '13년 5월 공사를 착수, '17년 3월 완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제2여객터미널에서도 KTX를 이용해 평창까지 97분, 부산까지 3시간, 광주까지 2시간 18분에 갈 수 있어 이용객의 편의와 접근성이 대폭 향상돼 1일 약 2만4557명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부 관계자는 "공항 활주로 직하부 통과사례가 있는 대만 송산공항 등 해외 유사 프로젝트도 빠짐없이 살펴 세계 일등인 인천국제공항에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설계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분야 주요설비 시공감리 직접시행

- 전기·통신분야 기술력 강화 및 68억원의 사업비 절감 -



기술본부(본부장 최강윤)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과 태백선 제천~쌍용 복선전철사업의 전철전력, 신호 및 통신설비 등 전기분야 주요설비 시공에 대한 감리를 직접 시행한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철도사업의 경우 오송~공주간 전차선로공사와 익산~공주간 신호설비공사에 대해 직접감리를 시행하고 제천~쌍용 복선전철사업은 전철전력설비공사와 통신설비공사 전구간에 대해 직접감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외부용역에 의존해왔던 고속철도 전기분야 감리는 경부고속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호남고속철도사업에서 최초로 직접감리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직접 감독에 투입되는 인력은 완벽한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해당분야의 일정 경력을 갖춘 내부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감리직무기술교육 등을 통해 업무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시공감리 직접시행으로 전기·통신분야 기술력 향상도 도모하고, 약 68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